

## ◇ 라돈가스 危險심각

—國內서도 검출—

암석이나 토양속의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방사성기체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라돈가스가 최근 歐美각국에서 그 위험이 예상외로 심각해 나라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극히 제한된 조사이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검출된 라돈가스 농도가 미국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환경청이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무색, 무취, 무미의 라돈가스는 벽 또는 마루의 갈라진 틈이나 지하수등을 통해 건물안으로 침투,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실이나 실내에 누적되어 고농도화할 경우 이를 장기간 흡입하는 사람에게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라돈을 50년전 「체코」의 한 광산에서 우라늄 광부들의 반수가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그 위험성이 처음 발견되었다.

美國 환경보호청(EPA)은 라돈의 허용기준을 공기 1ℓ 피코큐리(PCi)로 설정하고 있는데 PCi는 방사능 측정단위로 LCi의 1조분의 1을 말한다. EPA는 라돈 농도가 4PCi, 주택에서 70년간 거주하는 사람은 하루에 담배2갑을 피우는 것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

우리나라에서는 美空軍조사결과 오산수원기지 주변 건물에서 4~20PCi의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한양대 김윤신 교수가 87년1월부터 9월사이에 서울시내 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0.86~2.49PCi로 나타났다. <매일신문 10.10>

## ◇ 수렵제한후 「야생鳥獸」급증

—평균2.7배 노루 5.5배로—

산에 숲이 우거지고 수렵을 제한해온 결과 산에 사는 새와 짐승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전국의 산악, 구릉지등을 대상으로 매년 54개 조사지역을 뽑아 실시한 야생조수 서식밀도조사에 따르면 87년의 경우 71년에 비해 서식밀도가 평균 2.7배, 멧비둘기 2.6배, 노루 5.5배, 쇠오리 25.5배, 쇠기러기 136.5배가 각각 증가했다는것. <中央日報 10.12>

## ◇ 小白山 「朱木」보호책 마련

—고유번호 붙이고 관리대장 비치—

천연기념물 제244호인 小白山朱木郡落地의 주목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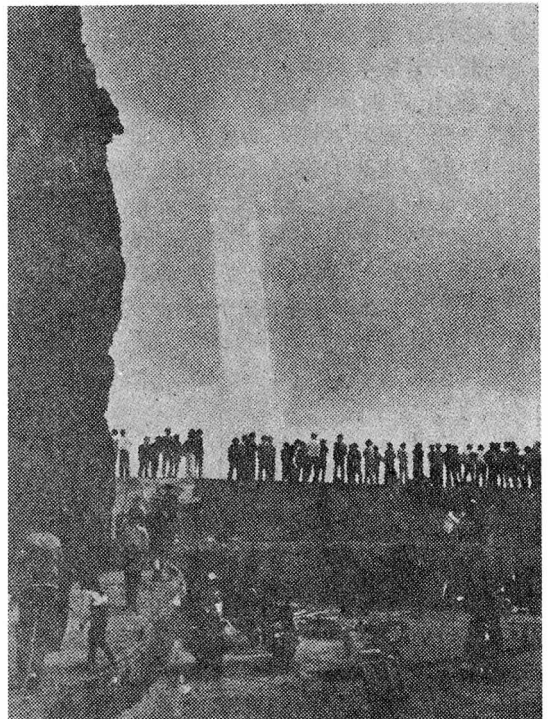
호를 위해 南部영림서는 朱木의 매본마다 고유번호를 붙이고 관리 대장비치등 철저한 관리로 도벌을 방지하고 있다. 주목은 해발7백~2천5백m사이의 고산에서 자생하는 침엽수로 한국, 中國, 日本등지에 분포돼있는데 몇년전 까지만 해도 도벌꾼들에 의해 도벌되자 南部영림서는 지난84년 소백산일대 259ha에 분포돼 있는 주목 30~5백년생 3천8백 64본에 고유번호를 붙이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월3회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 또 榮豊군과 단양군에 의뢰 등산객 계도와 인근 주민을 관리인으로 지정 보호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그루의 도벌도 없었다는 것. 이같은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을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慶北日報 10.16>

## ◇ 鬱陵島에 용오름 현상

—50m물기둥 5백m 치솟아—

지난10월18일 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5분까지



10월 18일 오전에 울릉도 도동항 2km앞 해상에서 바다최오리로 불리는 물기둥이 하늘높이 솟아 올랐다(중앙에 흰부분이 물기둥)

25분간 울릉도 도동항앞2km해상에서 바다회오리로 불리는 직경 50m의 물기둥이 일어나 바다물이 5백m가량 치솟아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다. 울릉도측후소에 의하면 용이 하늘로 오르는 현상과도 같다 하여 기상학적 용어로 「용오름 현상」이라 불리우는 물기둥 현상은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시유(구름이름)가 발달, 에너지(수증기)부족으로 바다물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우니나라 근해에서는 미약한 물기둥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바다에서 눈으로 관측되는 예는 드문것으로 알려져 있다. <慶北日報 10.22>

### 높이 7百 m의 「용오름」도

한편 11월27일 오후 2시35분 부터 15분동안 울릉도 남쪽 5km동해상에서 바닷물이 심한 돌풍에 휘말리며 하늘로 치솟아 폭 10-20m, 높이 6백~7백m의 거대한 물기둥이 형성되는 「용오름 현상」이 관측됐다. 용오름 현상은 지난 64년 서울특별시부근에서 발생 많은 피해를 내기도 했다<中央日報 11.28>

### ◇ 內藏山 榧子林 죽어가고 있다.

—천연기념물 10그루 枯死—

국립공원 내장산에 군락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 153호인 비자람이 죽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내장사에서 1.5km 떨어진 圓寂庵부근에 자라고 있는 34그루의 비자람 가운데 10여그루가 고사돼가고 있다. 지름이 50cm 높이가 10m내외인 이곳 비자람은 수령이 7백년 이상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노화돼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全北日報 10.31>

### ◇ 漢拏山 천연보호구역서 큰불

—피해면적 5만평 추정—

지난11월13일 상오9시경 漢拏山국립공원 1천3백오지 「사라악」부근에서 산불이 발생 때마침 불어닥친 초속 12m의 강풍을 타고 짱짱나무등 우거진 천연림을 태우다 10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최소한 천연보호구역 5만명이상이 피해를 입은것으로 보이는데 강풍이 휘몰아친 데다 계속된 가뭄으로 바싹마른 낙엽등이 가세. 많은 인원이 동원됐지만 불길을 잡는데 애를 먹었다.

<제주신문 11.14>

### ◇ 국립공원 소금강 소쩍새등 천연기념물 9種서식

국립공원 소금강일대에 動植物7백80여종과 천연기념물 9종이 자생하고 해안과 인접해 기후변화가 심하며 강수량도 중부지방의 연평균보다 20%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5월부터 12월까지 江原大 曹圭松교수팀의 소금강 학술조사결과 나타났다. 소금강은 태백산맥의 동사면에 위치해 산악지역의 기후특징에다 해안에 인접해 지역에 따라 기후변화가 심하게 나타나 연 강수량은 대관령 1,447mm, 강릉 1,383mm 보다2백여mm나 많은 1,657mm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식물식생의 경우 모두 1백4과 3백52속 5백58종, 13속종, 6품종으로 관속식물이 살고 있어 우리나라의 식물4천5백90종의 12.6%가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곤충은 딱정벌레목이 34종 벌목이 32종, 노린재목28종, 파리목26종 메뚜기목22종으로 이들 5개목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나비목은 불과10종으로 이중 나방류는 털날개나방 1종 뿐이며 철새는 59종으로 이중 텃새가 29종으로 49.1%였고 여름새 25종(42.37%), 겨울새는 4종(6.7%)통과새는 1종(1.66%)으로 밝혀졌다.

천연기념물 및 희귀조류는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황조롱이(323호), 올빼미(324호), 소쩍새(324호), 까막딱따구리(242호)등이 있다.

소금강 일대의 포유류는 6목14과 25종이 서식, 이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은 산양, 사향노루, 하늘다람쥐, 수달등이 있고 희귀종인 노랑목도리담비, 너구리, 고슴도치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서류는 2목5과9종으로 도롱뇽 꼬리치레, 무당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청개구리,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움개구리등이 주류를 이루고 파충류는 2아목 3과11종으로 밝혀져 대륙유혈목이, 유혈목이, 구렁이, 살모사, 누룩뱀, 능구렁이, 쇠살모사, 까치살모사가 서식하고 있었다.

또 피라미, 격지, 버들개, 산천어등 9과 15종의 어류도 서식하는등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밀렵방지와 함께 약초, 산채 채취자의 동물안식처 접근 금지는 물론 진고개 차도 개통시 동물들이 놀라지 않도록 주행속도를 50km미만으로 제한하고 경적도 울리지 말아야 하는등 각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 南濟州城山「미천굴」에서  
原形熔岩結晶體, 天井熔岩球

제주도 南濟州군 城山읍 三達리 「미천굴」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원형 용암결정체인 天井熔岩球가 형성돼 있음이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한국 동굴학회가 11월12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일본·뉴질랜드와 우리나라 동굴관계학자 등 21명을 초빙, 도내 동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 綠色植物 水質·토양汚染막는다.

나무등 녹색식물은 산소를 주는 대신 탄소 동화작용을 해 인간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산소공급원이다. 이처럼 식물이 자연에 산소를 제공하는 공급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水質·토양을 淨化시키는데도 큰 몫을 한다는 것이 日本 京都大 농학부 山幸土교수팀에 의해 밝혀졌다.

이팀은 산림지역과 민둥산의 빗물을 분석, 산림지역의 땅속을 통해온 빗물은 酸性 또는 알칼리도가 中性으로 될 뿐 아니라 살충제의 농도도 저하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팀은 실험 대상으로 大津市 동남쪽의 통칭 「湖南 알프스」라 불리는 곳의 산림지역으로 赤松과 전나무가 뻗뻗이 들어찬 桐生지구와 그곳서 남쪽으로 5km떨어져 있는 若女地區를 선정 이두곳에서 빗물과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용출하는 물(유출수)의 PH농도와 살충제인 BHC의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양쪽지구 모두 빗물의 PH는 5.2로 酸性이 강했다. 땅속에서 스며나오는 流出水는 桐生지구가 7로 낮아졌는데 若女지구는 6.25로 산성그대로로 산림지역의 중화능력이 높은 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빗물중의 수소이온이 토양중의 칼슘과 마그네슘등의 알칼리 특히 금속이온과 이온 교환하는 것과 같으며 산림지대의 토양은 낙엽이 썩어 있어 빗물의 체류시간이 길고 토양중 이온끼리 접촉할 기회가 많아 되어 이온교환이 촉진된다고 설명한다. 이런 결과는 산림토양 특히 腐葉土는 수질정화작용과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서울신문 12.20)

“山岳운동의 뿌리”  
韓國山書會主催 세미나

제 1 회 山岳文化賞 成大山岳部에

산악운동의 뿌리와 흐름을 탐구하는 韓國山書會(회장 孫慶錫·成大師大교수)가 주최하는 설악산세미나가 12월3일 오후1시 서울프레스센터 19층 대회

의실에서 吳漢九 대한산악연맹 회장을 비롯한 산악단체장, 李敏載박사(자연보호중앙 협의회장)등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관계 단체장, 학계인사 및 회원 50여명이 모인가운데 개최됐다.



△山書會주최 설악세미나(中央·인사하는 孫회장)

孫회장은 인사를 통해 2년전의 山書會 창립을 기념하고 설악산이 우리나라 산악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연구하기위해 이 세미나를 갖게된 것이라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산악운동의 축소판이라 전제한다면 그날이되면 백두산·금강산세미나도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한후 등산운동은 文化를 일으키는 운동이 돼야한다면서 올바른 山岳운동을 하루 빨리 定立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金永棹 한국산악연구소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6·25때 수복된 설악산에서 55년대부터 한국알피니스트 운동이 태동되어 80년대에 들어 왕성한 해외원정에 이른 4반세기된 산악운동을 일깨우면서 200년이 넘는 서양인의 등반역사와 견주어 설악산이 한국산악운동의 모태라 비유했다.

金長好교수(東國大 韓國文學연구소장)는 自然과 人間이 한뿌리임을 역설한 끝에 이용에만 급급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편의시설도 그만하고 밤에도 山속에서 장사하는 행위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교수는 구라파는 개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같은 「레벨」로 놓고 검토한다면서 남의 50년대 관리방식을 모방해선 안된다 말하고 1日徒步거리에선 편의시설을 철거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밤엔 코리아나호텔서 리셉션感況

한편 孫회장은 同會가 제정한 제1회 山岳文化賞과 상금100만원을 「히말라야 안나프르나 등반 및 보고서 작성」에 공적이 평가(심사보고·許昌成부회장)된 成均館大 山岳會(지도교수 崔任煥경상대학장)에게 수여했다. 또한 동일 오후 6시부터는 코리아나호텔 22층 그로리아홀에서 洪鍾仁씨를 비롯한 산악관계원로와 본회와 국립공원 관리단이사장 등 관련기관단체장 각계유지를 초청한 리셉션이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